

# 16강 쾌거! “고마워요 태극전사” 금의환향

“밤을 지새우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준 국민과 성원해준 붉은악마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원정 16강 목표를 달성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한국 축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해답을 찾았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출전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끈 허정무(55·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은 29일 오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월드컵 해단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8강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과 성원해준 국민과 축구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주장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짧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4년 뒤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는 질

돌아온 허정무호 “국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캡틴 박지성 “4년 뒤보다 내년 아시안컵이 우선”

문에 “지금 현재는 4년 뒤 월드컵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장 다친 아시안컵이 우선이다”고 잘라 말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16시간여 만에 29일(한국시간)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달 22일 일본과 평가전을 치르려고 한국을 떠난 지 38일 만의 귀환이다.

허정무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선수 23명 중 러시아로 이동하는 김남일(통 톰스크), 그리고 스코틀랜드

셀틱과 입단 협상을 벌이며 영국으로 떠난 차두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태극전사들은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과 팬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입국장으로 들어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청용(22·볼턴)과 프랑스 리그 1에서 맹활약했던 간판 공격수 박주영(25·AS모나코) 등 해외파도 귀국길에 동행했다.

귀국한 국내와 선수들은 K-리그를 준비하고 유럽 파들도 ‘월드컵 휴식기’를 국내에서 보내고 나서 다음

달 초 출국할 계획이다.

대표팀은 8월 초 새로운 체제로 출범한다. 대한축구협회는 7월10일 이전에 기술위원회를 열어 허정무 감독의 후임을 선임하는 등 대표팀을 재정비한다. 허정무 감독이 연임할지 새로운 인물이 사령탑으로 선임될지에 따라 코칭스태프 변화의 폭이 결정된다.

개편되는 대표팀은 8월11일 A매치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8월 초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다시 모인다.

‘캡틴’ 박지성을 포함한 기존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9월7일 이란과 평가전, 10월12일 국내에서 치러지는 일본과 평가전으로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2011년 아시안컵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네덜란드 VS 브라질

# ‘또 하나의 결승’

내달 2일 밤 ‘유럽-남미 자존심 대결’

남아공 월드컵 최고의 명승부 예고



〈아르헨 로벤〉

‘삼바 군단’ 브라질과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또 한 차례 월드컵 명승부를 예고했다. 7월2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 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남아공월드컵 8강에서 맞붙는 두 나라는 월드컵 본선에서 항상 명승부를 연출했던 사이다.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 열린 첫 대결에서는 요한 크루이프를 앞세운 네덜란드가 자이르지뉴가 이끈 브라질을 2-0으로 물리쳤다.

이후 두 나라는 20년이 흐른 1994년 미국월드컵 8강에서 다시 만났고 이때는 브라질이 난타전 끝에 3-2로 이겼다. 골을 넣은 선수들 이름을 보면 호마리우, 베베투(이상 브라질), 데니스 베르캄프(네덜란드) 등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브라질이 먼저 2-0으로 앞서가자 네덜란드가 2-2로 따라붙었고 다시 브라질이 후반 36분에 브라코의 결승골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특히 다섯 골이 모두 후반에 터져 재미를 더했다. 역대 최고의 골 세리머니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 베베투의 ‘아기 어르기’가 바로 이 경기에서 나왔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4강에서도 브라질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결승에 오르는 등 역대 A매치 상대 전적에서 3승4무2패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 네덜란드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조별리그부터 4연승 중인 팀은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뿐이다. 게다가 부상으로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 결장했던 아르헨 로벤(바이에른 뮌헨)이 조별리그 3차전 교체 출전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16강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와 선제골을 넣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카카〉

이 에 맞서는 브라질은 살방이 따로 필요없는 세계 최강팀이다. 카카(레알 마드리드)의 조울 아래 루이스 파비아누(세비야), 호비뉴(산투스)가 쏘아대는 위협적인 슛을 당해내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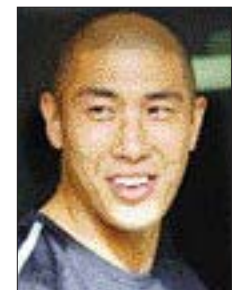
특히 세계 랭킹 1위(브라질)와 4위(네덜란드)인 두 나라는 서로 이번 고비만 넘으면 4강에서 가나(32위)-우루과이(16위) 승자와 맞붙게 돼 8강 승리가 곧 ‘결승권 티켓 예약’과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8강 대결보다 하루 앞서 열리는 또 하나의 ‘남미-유럽 자존심 대결’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 로봇’ 차두리 스코틀랜드 ‘셀틱’ 간다

2010 남아공월드컵축구대회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유럽 구단들의 경쟁이 뜨겁다.

축구 최대 이적시장인 월드컵에서 각국 스타 선수들은 몸값을 높이고자 안간힘을 썼고 8월 개막을 앞둔 프리메라리가와 세리에A, 프리미어리그 등 3대 빅리그 구단도 전력 보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두리 로봇’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축구대표팀의 수비수 차두리(30)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으로 이적한다고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가 29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차두리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키커’와 한 인터뷰에서 “내일 신체검사를 받고자 클래식고로 넘어간다.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 2주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시즌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용은 소속팀에서 임지가 불안해 새 시즌을 앞두고 이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월드컵 한국-아르헨티나 경기에서 오범석이 파울을 범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아르헨티나의 왼쪽 미드필더 앙헬 디마리아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빅리그 입성에 성공했다. 포르투갈 벤피카에서 뛰던 22살의 디마리아는 2500만 유로(한화 370억원 상당)의 이적료를 받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고 명문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했다. /연합뉴스

## 한국에 배웠나? 브라질판 거리응원



28일(현지시간)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이 남미의 북방 칠레를 3-0으로 완파하자 리우 데 제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을 가득 채운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대도시에는 이날 사실상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등 월드컵 6회 우승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연합뉴스

# 호랑이 ‘삭발 결의’... 위기의 팀 구할까



이종범·김상훈·이현곤 등 “연패 끊자” 필승 각오

SK→삼성→두산과 ‘죽음의 9연전’ 만반의 준비

팀 창단 이후 최대 연패인 9연패를 안고 안방으로 돌아온 KIA가 29일부터 SK와 대결을 시작했다. 주말에는 3위 삼성과의 3연전을 갖게 되는 KIA는 다음주에는 다시 두산과 잠실에서 격돌한다. 말 그대로 ‘죽음의 9연전’이다. ‘강자’ SK와의 대결을 앞둔 이날 KIA 덕아웃에는 긴장감이 나타났다. 연패 행진이 끝나기도 전에 뼈아픈 첫 패를 안겨줬던 SK와 다시 만나게 된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경기 앞서 이현곤이 삭발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운동장에 나타나 훈련을 리드했다. 두산과의 잠실경기에서 이종범·김상훈·김원섭 등이 머리를 짧게 치고 나온 데 이은

고창들의 삭발 결의인 셈이다. 전날 특별 타격훈련을 했던 야수진은 이날도 평소보다 일찍 방망이를 들었다. 분위기는 비장함을 넘어 간절하기까지 했다.

투수들은 수비훈련까지 소화했다. 스트레칭을 끝낸 투수들은 이강철 투수 코치의 지휘 아래 수비연습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2기 체제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조범현 감독도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조범현 감독은 ‘풀야할 숙제’ 나지완을 붙잡고 특별과외에 나섰다. 지독한 부진에 빠진 KIA 타선에서도 아킬레스건으로 고통받는 것은 3번 타자의 공백이다. 올 시즌 3번 자리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나

지완은 들쭉날쭉한 성적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배팅게이지 뒤에서 나지완의 타격을 유심히 지켜 본 조 감독은 직접 타격 폼을 가다듬어 주는 등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편, 기아의 9연패는 SK전부터 시작됐다. 대전에서 한화를 상대로 승을 싸웠이하

## 2군들의 큰 잔치 ‘퓨처스 올스타전’ 내달 17일 개막

‘야기호랑이’들이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을 위해 제주를 찾는다.

KIA 타이거즈의 ‘루키’ 홍재호·이인형(이상 내야수)과 2년차 투수 정용운 그리고 3년차 포수 백용환이 다음달 17일 제주 오라 야구장에서 열리는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2군 선수들의 큰 잔치인 퓨처스 올스타

전 올해로 4회를 맞이하며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남부리그와 북부리그로 나눠 승부를 가리게 되는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차세대 거포들의 홈런레이스 및 팬사인회, 연예인 야구단과의 친선 경기 등의 행사도 마련됐다. 우선시에는 다음 날로 순연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2군 선수들의 큰 잔치인 퓨처스 올스타

전은 올해로 4회를 맞이하며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남부리그와 북부리그로 나눠 승부를 가리게 되는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차세대 거포들의 홈런레이스 및 팬사인회, 연예인 야구단과의 친선 경기 등의 행사도 마련됐다. 우선시에는 다음 날로 순연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